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 AIDS 신규 감염자, 5년 연속 1천 명 이상

동성과 성관계가 이성에 비해 감염위험 27배 높아

지난해 국내에서 보고된 신규 에이즈(AIDS) 감염자는 1191명으로 남성이 91.4%를 차지, 5년 연속 1천 명대를 넘어섰다. 또 여성 AIDS 감염자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성관계가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는 동성간 성관계가 48%에 달한다고 답했으나, 이 질문에 대한 무응답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25%에 달해 실제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UN의 AIDS 전담기구인 UNAIDS에 따르면 AIDS발병률은 동성 간 성관계가 이성 간 성관계보다 무려 27배나 높다. HIV 감염인은 HIV에 감염된 사람들, AIDS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돼 2차 감염 등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AIDS 감염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94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30대 290명(24.3%), 40대 212명(17.8%) 순으로 20~40

대가 전체 약 75.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감염자도 55명에 달해 10대의 무분별한 성관계가 AIDS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감염자 중 내국인은 1009명(84.7%), 외국인인 182명(15.3%)이다. 신규 감염 내국인 1009명(남성 959명, 여성 50명) 중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753명이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752명이 성관계(동성 간 358명 48%, 이성 간 394명 52%)에 의해 감염됐다고 응답했다. [GNPNEWS]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3:25)

**기도 |** 음욕에 휩싸여 스스로 죽는 줄 알고도 죄를 끊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로 회복하셨음을 믿고 에이즈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제공: WMM

- 식사 배식을 기다리는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

아이들이

일제히 반짝이는 은색 접시를 받아 자리에 앉아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무표정한 아이, 심각한 표정의 아이, 잠깐의 지루함을 참지 못해 접시를 들고 장난치는 아이, 카메라를 향해 자세를 취하며 웃는 아이들이 보인다.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양식을 말씀으로 공급하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생명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시고, 주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 주님은 나의 생명, 그분의 말씀은 내 양식이 되었다. [GNPNEWS]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111:5)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3)

##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절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당신의 느낌 때문에 불교를 선택하셨군요. ‘느낌’. 그것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셔도 괜찮겠습니까? ‘느낌’. 그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숲 속에 작은 집, 그 집 앞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사람들은 호수가를 빙 둘러 가기도 다 얼어있는 호수 위를 가로질러 그 집에 가길 원했습니다. 어느 날 A가 호수 얼음 위를 걸어가다 시작했습니다. 느낌에 호수가 꿈뽕

얼어있는 것 같았고, 지난 겨울에도 건너간 적이 있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호수 중간은 실제로 살얼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빠져 죽었습니다.

겨울이 더 깊어진 어느 날, B가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정말 의심이 많아 얼음판을 한 발 한 발 살얼음 딛듯 건너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덜덜 떨며 의심하며 건너갔지만, 얼음은 실제로 꿈뽕 얼어 있었기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의 느낌이나 확신과 전혀 관계없이 그 호수가 제대로 꿈뽕 얼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호수의 상



일러스트= 김경선

태가 걸어도 될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에서 받았던 당신의 편안한 느낌에 의존하시면 위험합니다.

편하지 않아도, 어색하고 힘들어도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가야 하고, 편하고 취향에 맞지도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구원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밖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건널 수 있는, 그리고 건너야 하는 건고하고 하나뿐인 얼음입니다. 그 얼음 위로 건너십시오.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 INSIDE

뉴스 | 한국

“복음학교는 참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이끈 전환점” 2면

기획 | 복음기도신문 초대석

“어떤 어려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3면

인터뷰 | 최종일 목사

“나의 권리를 포기하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다”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길”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 “복음학교는 참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이끈 전환점”

## 복음학교 컨퍼런스, 목회자들의 진솔한 고백 눈길

“내가 경험한 복음학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참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이끈 전환점이었다”

지난 7월 26일 성남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열린 ‘복음학교 컨퍼런스’에서 박원옥 목사(부천 산돌감리교회)는 복음학교가 자신의 인생과 교회를 송두리째 바꿔 놓는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예장합신이 복음학교의 이단성 시비를 제기(본지 186호 참조)한 데 대해 이 훈련과정을 주관하는 순회 선교단은 복음학교의 역사와 경과 과정, 또 복음학교를 통해 허락된 은혜를 나눔으로써 참가자들이 복음학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복음학교를 경험한 목회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이 훈련과정과 훈련 이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복음의 영광을 경험했는지를 실제로 소개한 자리였다.

2011년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석한 박원옥 목사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친 목사였지만 복음학교를 통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며 “복음학교는 죄 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부활의 영광 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또 같은 해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여한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는 “복음학교를 마치며 복음을 이용하는 목회가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하는 목회를 하며, 나도 믿지 못하는 예수와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하면서 그것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그동안 수많은 훈련과 양육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복음학교 이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복음으로 통일시켰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총체적으로 변했다. 자신이 깨어지는 만큼 주님이 드러나시기에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늘어났고, 위기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상을 통해 사례를 발표한 오성광 목사(시드니중앙장로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순종하던 중 2009년 김용의 선교사님을 집회에서 만나 느헤미야52기도를 소개받고 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실제되어야 한다는 경험을 하면서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배경으로 2014년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석한 오 목사는 “그 이후 모든 사역자와 장로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복음학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이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밝혔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해 영적인 체험을 갈구하며 수많은 훈련을 거치다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학교에 참석했다는 정용비 목사(전주온누리교회)는 훈련 이후 하나님의 실존, 복음, 믿음이 실제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복음학교를 다녀와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새 사람이 된다. 그렇듯 복음 앞에 서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복음학교가 완벽한 집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한 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같이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모태신앙을 변화시킨 복음학교는 정말 놀라운 집회”라며,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복음이 실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복음학교는 제2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훈련과정”이라고 말했다. [GNPNEWS]

※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 발표 내용 전문 게재

한국

# “제주 예멘 난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 제주도 적십자사의 의료지원을 받는 예멘의 망명 신청자들(출처: 유튜브 캡처)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 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말했다.

폴리 목사는 최근 VOM 웹사이트를 통해 “예멘 이민자들은 가짜 이민자요 한국을 이슬람화하도록 훈련받은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다

는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관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무슬림 난민이 안전한 사람들이며 우리를 향해 좋은 의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기 전 모두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사도 바울도 한때 기독교인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무슬림으로 이 땅을 찾은 난민

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가장 폐쇄적이고 복음화되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VOM은 중동 전문가인 톰 도일 선교사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소망 없는 땅인 예멘의 국민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며 “교회의 사명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외국인선교회 전철한 선교사는 “예멘 난민들은 이 땅을 찾아온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 21~ 8. 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만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소아성애자에게 아들 팔아넘긴 獨부부 12년 이상 중형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원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아성애자들에게 어린 아들을 수차례 팔아넘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및 학대한 혐의 등으로 모친 베린 T(48)와 계부 크리스티안 L(39)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주여, 생명 다해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부부의 비참한 소식을 직면합니다. 성매매를 당한 아이의 찢긴 영혼을 치료하여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복해주시길 강청합니다.

### 덴마크, ‘이슬람 니캅’ 착용 여성에 벌금 17만 원 첫 부과

덴마크의 한 쇼핑센터에서 이슬람 전통복장인 니캅을 착용한 여성이 벌금 1천 크로네(약 17만 원)를 물게 됐다고 영국 BBC방송과 AF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덴마크에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첫 번째 처벌을 받는 사례가 됐다.

진리가 아닌 것을 생명같이 여기도록 부추기는 이슬람과 덴마크의 갈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지만 결코 방종이 될 수 없듯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증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 “독일서 이슬람 난민이 1살 여아 참수”… 메르켈 정부 보도 통제?

지난 4월 독일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슬람 이민자가 한 살 난 여아 아이를 참수(斬首)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이슬람 원리주의 감시매체 ‘지하드워치(Jihad watch)’가 보도했다.

난민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는 독일을 긍휼히 여겨주시시오. 통제되지 않는 난민들의 행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배격한 인도주의가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보는 시선을 허락하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8월 20일 ~ 9월 1일

### 8월 20일~8월 25일

▶경기 성남 / 금광교회 (민\*\*)010-7747-3381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8.20~22(매일 0~24시) ▶경남 김해 / 진영대성교회 (박\*\*)010-3930-6296, 8.20~21(매일 06~18시) ▶전북 전주 / 사론교회 (진\*\*)010-2638-1440, 8.20(07시)~24(23시)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8.20~21,23~24(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8.20-25(매일 09-18시)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8.20~21,23~25(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8.20,22~25(매일 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 8.22(매일 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 (윤\*\*)010-7925-6004, 8.22~24(매일 0~24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 (권\*\*)010-7754-1726 8.21(10~1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8.21(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8.21~24(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8.23(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8.23(10:30~12:30) ▶경기 수원 / 영어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8.23~25(매일 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 (최\*\*)010-4661-4039, 8.24(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8.24(19-21시) ▶광주 북구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8.24(20-22시) ▶광주 동구 / 삶이매인교회청년부 (진\*\*)010-3305-3541, 8.24(10시)~25(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8.24(14시)~25(14시) ▶L국 / 벵개오드림센터 (이\*\*)010-4292-4365

### 8월 27일~9월 1일

▶전북 전주 / 전주온누리교회 (고\*\*)010-8026-5287, ▶경기 부천 / 부천산돌교회 (박\*\*)010-3018-5519,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손\*\*)010-3913-2677, 8.27, 29~9.1(매일 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8.27~28,30~9.1(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8.27~28,30~9.1(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8.28(10-1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8.28(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8.28(12-24시) ▶대전 서구 / 반석교회 (임\*\*)010-2276-8221, 8.28-31(매일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8.30(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8.30(10:30~12:30) ▶경기 수원 / 영어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8.31(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8.31(10시)~9.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8.31(19시)~9.1(19시) ▶L국 / 기쁜교회 (김\*\*)856-20-5424-5705, 9.1(06-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김\*\*)010-7770-9191, 9.1(10:30-12시)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 “어떤 어려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합신 이대위의 이단 시비에 대한 김용의 선교사의 고백



본지는 창간호부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기고문의 고정 필진으로 동역 중인 김용의 선교사(순회 선교사·LOG미션 대표)를 만났다. 최근 예정 합신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로부터 이단성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김 선교사의 입장과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들어본다. <편집자>

어느 날 자고 깨보니 유명해져 있고, 자고 깨보니 어느덧 이단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실제로 내 인생을 바꿔놔고, 평생 이 복음의 기쁨에 사로잡혀 나 같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멈출 수 없이 복음을 외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복음이 되고 서류보관용 복음이 되고, 화려한 세상 앞에서 퇴색해진 신학, 교리용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하고 실체가 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의 몸부림으로 복음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들이 활력을 얻는 등 기쁨의 행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복음을 받는 이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어서 ‘과도한 열심이 복음의 본질을 흐릴지 모른다’라든지,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하는 염려가 겹치면서 오늘 이단 시비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장로회 합신교단이었습니다. 합신교단 내 수원 노회의 한 목회자가 본인의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다녀온 사람에 의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의 정확한 확인도 없이 2014년에 합신 이대위에 조사를 촉구하게 되면서 촉발됐습니다.

4년 만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동안 우리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나 질문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가장 극단적인 결론인 이단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공청회에 참여했더니 공청회마저 마녀사냥식으로 이단이라는 일방적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였으며, 이후 복음학교가 마치 이단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검증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SNS를 통해 퍼뜨려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내 인생 전부를 바꾸어 놓은 일이고 온 열방이 들어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다름으로 하든 허영으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던 바울처럼 제 마음에도 한편 그런 기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쓸쓸한 것은 개혁주의의 보루라고 말하는 고(故) 박윤선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한국의 개혁주의 선봉에 섰다고 스스로 말하는 합신측에서, 그것도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거침돌을 제하고 교회를 살리는 목적으로 만들 어졌을 이대위에서 이단이라는 결론부터 내놓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같이 기뻐하고 복음의 동지가 되어 좀 다른 것은 서로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될 일인데 무슨 적을 대하듯이 같은 성경을 믿고 한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고 주님의 교회를 파당 짓는 일로 갔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 나의 복음에 대하여

이대위는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학교 훈련과정 중 ‘나의 복음’ 시간이 죄 고백하는 시간이며 교리적으로 문제

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의 복음’은 5박 6일간 진행되는 복음학교의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이대위는 ‘나의 복음은 공개 죄 자백이다. 공개 죄 자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몰아붙인다. 나의 복음을 해야 그 복음이다. 고로 그것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 이단이다’ 이대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의도로 왜곡된 논리입니다. 공청회에서도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복음학교를 다녀가신 분이라면 이들의 주장이 결코 근거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복음학교의 목적은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며 주제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총체적인 복음 앞에서 종합검진 받듯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이 나에게 정말 실체가 됐는지 확인하고 경험할 기회를 드린다고 마련한 것이 복음학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복음,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주제로 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변화받고 싶어서 복음 앞에서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학교의 정의입니다.

복음을 듣다 보면 ‘내게 왜 이 엄청난 진리가 실체가 안 되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라. 복음이 남의 복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로 훈련기간에 각자가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증하고 선포하면서 본인에게 확증하는 시간이 되라고 문자 그대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신학적 의미로 다른 해석을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은 표현 그대로,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평

생 울어도, 애를 써도, 교리를 외우고 연습해도 헤어날 수 없었던 비참한 죄인의 삶에서 복음을 실제 믿으니까 새 생명이 나의 것이 됐다” 이 감격을 이야기하려니, 어떤 죄인에서 나를 바꾸어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공개 죄 자백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고백하고 실체가 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복음인데 이것은 공개 죄 자백이 아니라 간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성숙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도 그 과정

## 먼저 나에게 실제 된 복음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현실, 안타까움으로 복음학교 시작 개인과 가정, 교회가 변화돼

## 총체적 복음 앞에 설 기회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춰 믿음으로 받고 확증하여 선포하는 ‘나의 복음’ 시간



을 다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보편화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논리일 뿐이고 이미 신학 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작성한 검증보고서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대위에서는 계속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말에 대하여

이대위에서 주장하는 것 중 또 하나는 복음학교에서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폄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간증을 통해 말했듯이 복음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극단적으로 헌신했다고들 하지만 전 늘 부족한 마음이 듭니다.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어머니 태와 같은 한국교회 없이 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생애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알

고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나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천하에 이보다 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위기라고 하기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 복음이면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이 복음으로 로마와 온 세상을 바꿨고 중세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학교를 시작한 지 16년이 넘었고 다시 복음앞이라는 주제를 외쳐 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돌아봐야 하겠기에 이야기했던 말들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폄훼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데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만 봐도 이 백성이 다 나를 버렸다 하시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배도했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복음학교를 왜 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의 청지기 사명이라고 말하는 성경적 개념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개인 이름으로 소유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무소유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교회를 허물고 폄훼하고 극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루터, 칼빈, 안 후스이고 그 뒤를 따른 개혁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한 극단적인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를 따라 갔으니 우리도 그 길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를 폄훼했다니요. 또 ‘신학교리가 복음이 실체가 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말을 꼭 떼다가 문제 있다고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요지는 “사도신경도 하고 신학교리를 다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도 실체가 안 되냐, 당신의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대위는 기독교의 교리가 복음이 실제 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무용론을 이야기 한 것처럼 공격하면서 한국교회는 복음이

(4면에 계속)



 특별기획 | 창조 이야기 (1)

#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은 세계관 전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 창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많은 유명 기독교인들까지 유신진화론 같은 창조론에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오랫동안 창조론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미국의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그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체계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

진화론을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종교가 우리의 학교 시스템과 법적 시스템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왔다.

현재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는 이 철학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이 사상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오랫동안 진화론에 대한 진짜 증거를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을 보는 방법, 즉 세계관은 두 가지가 있다. 이 세계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라진다.

1.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가치 있나?)
2. 나는 어디서 왔나?
3. 나는 왜 여기에 있나?
4.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해변에 떠내려온 원형질로 아무 가치가 없고, 우주의 트림 같은 현상으로 200억 년 전에 생겨났으며, 삶의 목적은 그저 느낌이 좋은 대로 살고, 죽고 난 이후 무덤으로 가서 재활용될 뿐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 1:1)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원하시는지 알아내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을 만들고, 그분이 이곳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이 법을 만드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의 사람은 진화론에 기초한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며, 성경을 믿는 사람은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 두 세계관은 서로 전쟁 중이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틀렸다. 우리는 누가 틀렸는지 안다.

## 사탄의 거짓말

마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귀는 지구에 와서 에덴동산의 여자에게 처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일으킨다. 여러 성경 버전에 관한 혼동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두 번째로 마귀가 여자에게 한 말은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이다. 그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귀가 세 번째로 여자에게 한 말이 오늘 내가 다루고 싶은 부분이다. “여자야, 내가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바로 여기서 진화론의 생각이 시작된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에덴동산에서 사탄에 의해 시작됐다. 사탄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모르몬교는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먹었다. ‘네가 훌륭한 모르몬교인이 되면 너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몬교인 아내이면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임신해서 영적 아기들을 생산할 수 있다’ 아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과거의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도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도 여

전히 교리 문답에 있다.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 가르침을 믿지 않으며,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TV부흥사로 알려진 한 목회자도 “에덴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설교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라 불린다.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미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으며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사 14:13~14) 루시퍼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서 화가 났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여자는 사탄에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와!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구나’ <계속> [GNPNEWS]

<3면에 이어>

## 진리에 한 소망 가진 동지되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 완전성화를 주장한다는 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대위는 복음학교에서 완전성화를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논란이 되었던 로마서 7장 24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복음으로 살 수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중생한 후에도 두 마음이 싸운다. 복음이 놀랍지만 복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화를 복잡하게 만든다. 자기가 결단 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화는 하루아침에 안 돼. 나중에 죽을 때 완전하게 되는 거’라는 식의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최선과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율법이 잘못되어 그렇게 살 수 없다

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옛 육적 자아의 연합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8장 3절 이하에 “율법이 육신이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즉 옛 사람의 모든 죄에 속해 불가능했던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 내주시고,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연합을 통해, 믿음의 연합을 통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으로 살면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했더니 완전주의라면서 극단이고 편향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바는 로

마서 6장 3~4절에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함께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장 6~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입니다. 이대위의 논리로 따지면 이것도 완전주의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7절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피질러 앉아 있으면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에 공로주의로 가려고 한다는 주장을 이대위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신학위원회에서 공로주의가 아니라 믿음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는 결론이 내린



이야기입니다. 복음학교는 신앙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도록, 실체가 안된 게 안타까워서 복음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 복음학교는 성경대로 믿도록 안내하는 곳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긴장과 경계를 허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 곡해들이 복음학교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진정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학교 참석이 어렵다면 그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한 책을 읽어보아도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진리에 한

소망을 가졌으니 얼마든지 교제하고 함께 동지가 되어 이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한 번도 걸여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전 지구촌에 있는 복음기도동맹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 시비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아들을 잡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논란 중에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한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게 한이고, 더 희생 못 한 게 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채찍으로 알고 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나의 권리를 포기하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최종일** 목사(새마음순복음교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기까지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없었다. 마침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최종일 목사를 만났다.

- 복음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그 진리가 내게 실제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복음이 실제 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네요.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한 분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도사님, 소개할 훈련이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에게 대뜸 복음학교라는 곳을 소개했어요. 당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역을 잠깐 쉬고 있을 시기여서 어렵지 않게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무 생각도, 준비도 없이 갔어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집회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곳에 온 것 아닌가 싶었어요. 나름 은혜 받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대신 훈련을 받으며, 열심히 필기한 강의내용이 훌륭한 설교노트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을 마친 이후, 설교 때마다 그 복음노트를 가지고 활용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늘 버벅거리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 잘 정리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 강의 내용을 잘 정리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 무렵,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아내는 제가 결정하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구했어요. 수시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 기도했죠. 3개월이 지나자 너무 답답해서 20일을 작정하고 삼각산에 올라가 밤 기도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 기도할 때였어요. 주님이 저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바로 아내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날 저녁에 입주할 예배당을 계약했어요! 지금 이곳이 그때 주님이 인도해주시는 예배처소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리저리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가 안돼서. 그게 아닌 거죠.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 교회개척을 결정하다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던 아내도 복음학교에 다녀왔다. 아내는 훈련과정을 마친 이후, 뜨겁게 반응했다.



▶ 아웃리치 중 복음을 전하는 모습

- 사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 아내는 제가 복음학교 다녀온 지 1년 반이 지나서 딸과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복음학교를 다녀오더니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마치고 돌아온 주일 오후예배 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복음학교 다녀와서 설교도 쉽지가 않았는데, 아내는 십자가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된 내용을 정리한 ‘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구슬을 꿰듯이 선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저는 당시 교회에서 나의 복음을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었거든요”

- 충격이면서도 도전이 되셨겠어요.

“제가 복음에 직면한 것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저에게 공동체 훈련에 다녀오

면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6개월 과정의 복음사관학교라는 곳이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통해 내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나로서는 그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훈련센터가 있는 강원도에 갔어요. 도착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21절. ‘큰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

만, 시간만 나면 기도실에 가서 주님께 앞드렸어요. 2개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하다는 듯 말했어요. “과거에는 저였지만,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또 바로 물어보시더군요. “너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동일한 대답이었죠.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더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 것이냐?” “예,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은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된 믿음의 순종을 그에게 요구하셨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왕 된 자리를 포기하지 않던 그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군요.

“그렇게 기도실을 나오는데 학교 관계자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피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소변검사 하고 여러 가지를 검사했어요. 다 마친 이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프고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입을 열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또 다른 사건으로 제 마음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아웃리치를 가기 위해 재정을 구했지만 다 채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팀의 아웃리치 비용을 그날 다 채워주셨어요. 재정이 채워지고, 병원에 오게 되고,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군요.

저는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

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주님께 대한 완전한 의뢰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주님이 제 내면의 고민을 정리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 안하도록 도장을 찍듯 매듭지어 주셨어요”

## 도장을 찍듯 믿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개척할 때, 정확한 비전은 없었지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증인으로 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시는 말씀과 표어를 구했을 때,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증인 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바로 증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하겠다, 우리도 함께하겠다”하면서요. 이 말씀을 주셔서 1월에는 거의 이 설교만 했어요. ‘복음의 증인’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2월이 되고 3월로 넘어가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잊혀져갔어요.

그 무렵 인천에서 ‘한국교회 회개’를 주제로 하는 큰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집회 진행 측에서 제게 간증을 요청하셨어요. 그땐 ‘믿음의 증인’이란 올해의 표어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저 저는 어떤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나, 그런 것으로 고민을 했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집회 날이 되어 강대상 앞에 맨 앞줄에 앉았어요. 긴장이 되잖아요. 원고를 꺼내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생각이 났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어? 지금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신대로, 나를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구나. 그 누가 아닌 나를 먼저!’ 깨달아지는 순간, ‘붙잡아주세요, 뭐해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7)

##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꾸러져 믿게 된 바울이 외쳤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딤후 3:16)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에 바울은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율법적 사고, 인간의 최선으로 쌓았던 철학과 학식과 신학적 배경-배설물처럼 버렸다.(빌 3:7~9)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고백이 멋진 수사학(修辭學)적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들리는가? 결코 아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에게 실제 된 생명의 발현(發現)이었다.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강렬히 소망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

바울이 참여하고자 했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그가 세상에 외쳤던 복음의 비밀이었다. 이 비밀만이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다. 이 비밀은 바로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바울은 일평생 사역의 초점을 잃지 않았다. 그의 삶은 또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명확한 목표가 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개인의 인생, 인류 역사 전체가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목회의 목표도, 교육의 비전도,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도 여기서 빛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부 된 사람, 운명이 된 사람, 진리에 전부

를 건 사람을 통해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길은 여론이나 유행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것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시 19:10) 중세의 암흑이 ‘오직 성경’을 붙든 순종 때문에

건졌다. 더는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자! (2016년 12월 메시지 정리)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노주나

### Interview

<5면에 이어>

###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를 외쳤어요. 엄청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올라가서,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순간순간 육신을 따라가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존재를 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건드려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럼 또 그 은혜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은혜가 없으면 못 살죠”

최 목사는 주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실수록,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 그 깨달음이 어떤 순종으로 이어졌나요?

“사실 처음 복음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나의 복음을 하

는 목적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내가 죽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화합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복음사관학교 훈련을 통해 옛 생명의 죽음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나 정말 죽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죽었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겪으며 내 옛 생명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시간을 보냈고 이때 ‘나의 복음’이 제게 실체가 됐어요”

H.M.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52기도의 자리에서 '복음기도동맹군들'과 함께

복음도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하루 24시간 기도 24-365

### 1년 52주 연속 · 연쇄 ·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구입문의

야킨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8. 7. 20 ~ 8. 9 (가나다 순)

##### 개인

강종채 김경선 김동영 김사회 김성훈 김수미 김애심 김장일 김정대 김혜신 노은옥 박숙자 박순은 안민자 안수경 안현숙 유미실 이남준 이란영 이삼연 이정희 이준진 이진관 조남미 이진희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현광 주유순 차정규 최근희 최옥희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다음세대복음학교 대구열방교회 문광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돌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와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주식회사미션21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트리니티소프트 평안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아이들의 밥양과 표정을 보며 짐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띠리리~ “아~ 벌써 5시네.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이리 몸이 안 일으키고 눈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알람을 끈 후,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시간은 훌쩍 지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과교사에서 주방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일은 부담과 긴장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어도 한두 시간 간격으로 깜짝깜짝 놀라며 깨곤 합니다.

허겁지겁 급하게 뛰어나가 드리는 아침예배 시간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새벽 기운의 쉼터한 식당은 각 지체의 말씀의 은혜로 파스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풍성한 열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아침 예배를 한 번 빠져볼까?’라는 타협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허기짐으로 하루를 지낼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얼마나 잠을 잤는지



일러스트= 권숙진

헤아리지 않고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연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며 주방팀의 변화를 함께 고민할 때,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며 증인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배운 원리들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의 태도는 전쟁의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자와 같아야 한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즐거이 순종이

되진 않았습니 다. 가장 큰 이유는 힘들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던 현장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슬펐 습니다.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었나?’ 의외의 반응들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 ‘전쟁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라’

그때, 주님은 제 슬픔의 이유가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의 두려움이

라는 사실을 심령에 잠잠히 알게 하셨습니다. 드러난 저의 실체가 얼마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며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얼마나 나를 높이기 에 발 빠르니, 거룩한 체 하고, 판단 하며, 자기를 연민하는 자인지 보 게 하셨습니다. 변명할 것도 부인 할 것도 없었습니다. 존재가 죄인 인 나에게 그러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스스로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 앓고, 빠져나오려 하지 않고 고집부리던 제게 주님은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을 내미셨 습니다. 주님 손을 잡고 나오니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예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구하고 교제 하는 주방이 우리의 교실이며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방 신참으로 서둘고 허술하여 실수가 많은 막내인 저를 향해 믿음의 눈으로 봐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어른들 로 인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이제 끼니마다 전교생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배식하면서 아이들의 식성도 알게 되고, 표정과 밥양에 따라 아이들의 상태도 짐작해보며 기도드리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치열하게 전쟁하게 해주세요. 진리의 전쟁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텐데 영육 간에 균형 있고,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행복한 선교사로 행복한 행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동일하게 날마다 만났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뵈을 그 날을 더욱 소망합니다. [GNPNEWS]

민연희

##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하나님 나라를 북한 땅에 세워주세요”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는 모퉁이돌선교회 카타콤소식지에 게재되었던 탈북병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부모님의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진영(가명)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불공평한 북한 사회에 환멸을 느끼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18살에 군에 입대하였다. 그러나 군 복무를 하는 4년 동안 간부 자녀는 편한 곳으로 배치되고 복무 기간에 대학원으로 도 뽑혀가는데, 진영과 같이 뒷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곳에 배치되는 등 불공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점차 불만이 쌓여갔고, 급기야 2012년 상관과 크게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 화집에 부대를 나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군대로 복귀하는 것이 겁이나 무조건 힘든 산으로 들어가 이를 밤낮을 걸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먼 곳에 불빛이 보였다. 그 빛을 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나 한번 가볼까?’하는 생각이 들어 산을 따

라 걷고 또 걸었다. 북한 쪽에 설치된 가시 철책과 전기 철책을 넘어 4km나 되는 지뢰밭을 ‘그냥 죽든 살든 저기까지 가보고 죽자’는 마음 하나로 걸어서 통과했다. 기적이었다. 철책을 넘은 후, 걸어 내려간 곳에 보이는 건물 두 개 중에 한 쪽으로 가서 노크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반대편 건물에 갔더니 사람 한 명이 나왔다. 진영은 그 사람이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 사람은 북한 군복을 입은 피투성이의 진영을 보고 놀라 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 완전 무장한 군인 3명이 나와 두 손을 머리에 올린 진영을 향해 다가와 환영한다고 했다. 이때부터 진영은 ‘노크병사’라고 불렸다.

하나원(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 교육을 마쳤으나 배정받은 집이 바로 나오지 않아 쉼터에서 20여 일 지내는 동안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들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집단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못해 목사님을 따라간 부흥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다음날 쉼터에서 성경을 펴는데 그 전날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모두 믿어졌다.

하나님은 진영이 신학을 공부하도록 이끄셨다. 현재 청년사역을 감당하며 통일시대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할 사역을 꿈꾸는 진영은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니 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한에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북한선교’라는 부르심입니다.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독재 하에 있어서 배고픈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할 텐데, 복음이 들어 가야 할 텐데, 그래야 살 텐데’라는 마음입니다. 원래는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지금은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통일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을 할 때나 내가 북한선교를 왜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때, 같은 민족이라서 또는 가족이 그곳에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지난 3월 서울 양재에서 노헤미야글로벌이니셔티브(대표 케네스배 선교사)가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섬기기 위해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북한선교아카데미’를 개강했다. (출처: christiantoday 캡처)

서 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없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북한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는 오늘도 기도한다. “하나님, 북한선교가 동정심 같은 것으로 시작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 땅에 세워주세요”

[GNPNEWS]



## 거룩한 삶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성대한 기독교 행사가 열리는 것이 영성 때문일까? 기독교 사상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 영성 때문일까? 착각이다.

지성(知性)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갖춘 사람, 통찰력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현재 막다른 골목에 처한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의지적 결단에 따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을 전부 수용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은 작은 문제 하나까지 성경에 따라 사는 태도를 가리킨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규장각〉





김용의

복음의빛선교회 대표

나 에 게 실 제 가 된 십 자 가 복 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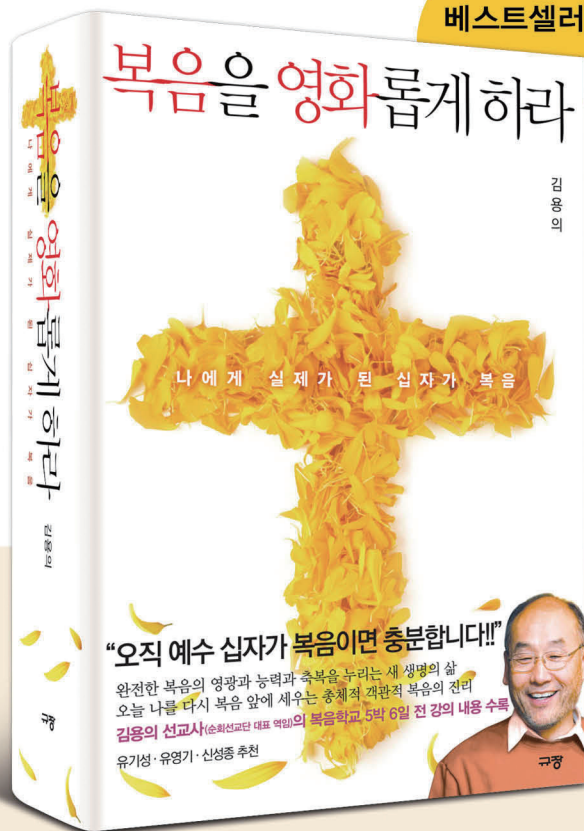
##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오늘 나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총체적 객관적 복음의 진리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역임)의  
복음학교 5박 6일 전 강의 내용 수록

유기성 · 유영기 · 신성종 추천

김용의(복음의빛선교회 대표)지음 | 양장본 | 920쪽 | 값 45,000원

베스트셀러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학교 김용의 선교사의  
사자후,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실재를 경험하게 하는 책!!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에 오직 복음이 전부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는 하나님나라의 복음 전도자.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순회선교단의 사명을 따라 한국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는 복음의 증인 된 순회 선교사다. 이 책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200여 차례 이상 진행된 복음학교에서 저자를 통해 나뉜 복음의 핵심 진리, 구원의 복음이 실재가 되도록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만 철저히 집중하고 고만하고 묵숨 걸고 부딪쳐도록 하는 강력한 훈련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순회선교단 창립 멤버이자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헤브론 원형학교와 헤브론 선교대학 이사장이자 복음의빛선교회(Light Of the Gospel Mission) 대표로 있다.



GODpeople

김용의

Q

f

로그미션 - LOG Mission

Q

▶

김용의TV

Q